

보도시점 2026. 2. 25.(수) 15:30
< 2.26.(목) 조간 >

배포 2026. 2. 25.(수)

수출 1조 달러 시대와 수출 5강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K-수출 원팀 가동

-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최(2.25)
- 올해 수출 7,400억 달러 목표로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무역금융 혁신방안」 발표
- ‘모두의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 무역금융 187조원 공급(~’30년), 무역보험법 개정
- 수출기업 대상 5조원 규모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무보-하나은행 MOU 체결

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국 행정부 후속 조치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로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K-수출 원팀(One-Team)을 가동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25(수)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에서 올해 7,4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안건 상세내용 붙임 참조). 이날 회의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대표기업, 수출 지원기관장이 참석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도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한류·인공지능(AI)·고령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 정상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해 소비재, 방산 등 8대 중점 품목*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며 “지방·영세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돕고,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다리를 구축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이어 김 장관은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며, “무역금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K-소비재, 방산 등 유망산업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5조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과 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향후 두 기관은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대상 중장기 보험 지원 한도 상향,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공유 등 무역금융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1)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안건1) 요약

(붙임 2)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안건2) 요약

(붙임 3)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요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020)	
		담당자	서기관	김윤희 (044-203-4021)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책임자	사무관	전기성 (044-203-4023)	
			사무관	노은정 (044-203-4024)	
		담당자	과 장	김종우 (044-203-4040)	
			서기관	김애경 (044-203-4041)	
<협조>	산업통상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장미연 (044-203-4030)	
		담당자	서기관	김현동 (044-203-4033)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사무관	정연신 (044-203-4032)	
			과 장	강규형 (044-203-4260)	
	산업통상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	책임자	사무관	안여선 (044-203-5239)	
			과 장	최광준 (044-203-4290)	
	산업통상부 첨단민군협력과	책임자	사무관	성소윤 (044-203-4291)	
			과 장	이선혜 (044-203-4150)	
	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사무관	김미연 (044-203-4157)	
			과 장	박근오 (044-203-5330)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책임자	사무관	정창준 (044-203-5339)	
			과 장	임채욱 (044-203-4320)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사무관	채기천 (044-203-4327)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사무관	김만식 (044-203-4333)	
			과 장	강연주 (044-203-4690)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윤찬민 (044-203-4695)	
			과 장	김재은 (044-203-4360)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책임자	사무관	천서현 (044-203-4361)	
			과 장	조근상 (044-203-4380)	
	산업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사무관	정원우 (044-203-4387)	
			과 장	이원희 (044-203-5940)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사무관	오혜원 (044-203-5942)	
			과 장	장보현 (044-215-451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사무관	하형철 (044-215-4512)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과 장	임강섭 (044-202-2960)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사무관	조영기 (044-202-2961)	
			과 장	김유라 (044-202-195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수출통상과	책임자	사무관	김소연 (044-202-1955)	
			과 장	김도영 (044-203-2461)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산업해외진출TF	책임자	사무관	김영진 (044-202-2462)	
			팀 장	이주형 (044-203-3892)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최진호 (044-203-3894)	
			과 장	임동우 (044-204-7500)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사무관	최영훈 (044-204-7502)	
			과 장	임창현 (051-773-5480)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박지수 (051-773-5482)	
			과 장	김지연 (043-719-3401)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책임자	연구관	김지연 (043-719-3403)	
			과 장	정경훈 (042-481-5155)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책임자	주무관	문해진 (042-481-3573)	
			과 장	박애서 (02-2079-6360)	
			담당자	사무관	최예지 (02-2079-6376)

붙임1	[안건1]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비전	모두의 수출을 통한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	'26년 7,400억불로 역대 최대수출 경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대 전략 분야 중심 품목·시장 다변화 추진 ◆ 금융·전시·인프라 수출 지원체계 혁신 ◆ 지방·중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수출 사다리 구축

품목·시장 다변화	수출 지원체계 혁신	수출기업 육성
<p>① 新트렌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 전력기기 ▶ 바이오헬스 <p>② 정상외교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 ▶ 원전 <p>③ 통상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 선박 ▶ 철강 	<p>① 무역 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 금융 확대 ▶ 품목·시장 특화 금융 ▶ 무역금융 제도 정비 <p>② 전시 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드마크 전시회 육성 ▶ 지역 연계 전시 ▶ 전시인프라 확대 <p>③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장벽 119 ▶ AI 수출 플랫폼 ▶ 해외지원거점 효율화 	<p>① 지방·영세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 <p>② 중소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 <p>③ 중견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드클래스 플러스 <p>④ 선도·초보기업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무역상사 ▶ 동반진출 프로젝트

【 (안전1)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

정부는 고조되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넘어 올해 수출 목표 7,4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① 품목·시장 다변화, ② 지원체계 혁신, ③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 8대 전략 품목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한류, 인공지능(AI), 고령화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분야를 전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다. ❶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차례 한류박람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해외직접판매(해외역직구)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몰도 5개 구축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이 해외로 동반진출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재 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 자금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❷ 또한, AI 인프라 수요에 따른 주요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전력기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굴부터 기업매칭, 선제적 금융 제공까지 연계 지원한다. ❸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설('26, 1,500억원 규모)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오 데스크를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활용한 방산·원전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❹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❺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중동, 유럽, ASEAN 등 지역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협력을 통해 자동차, 선박, 철강 등 주력품목의 안정적 수출도 지원한다. ❻ 자유무역협정(FTA)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중남미,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❼ 주요국 조선협력 등을 통해 선박블록기자재 수출 확대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형 조선사 수주를 위해 7,400억원 수준의 선수금환급(RG)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⑧ 철강의 경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관세 할당제도(TRQ)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추진하고, 기업의 주요국 무역구제조치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둘째, ‘모두의 수출’을 위해 금융, 전시, 인프라 등 지원체제도 혁신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 공급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을 통한 상생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 정부·공기업·은행 간 협업을 통한 지역판 상생금융 상품의 신설도 검토한다. 또한 소비재, AI, 방산, 원전, 플랜트 등 수출 유망산업 지원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금리 우대, 보증 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 마케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전시산업과 관련해, 첨단산업과 K-컬처 등 강점을 활용한 특화 전시회와 5극 3특 성장엔진 연계 지역전시회를 육성하고, 민관합동 전시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상반기 「가칭대한민국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기업의 관세와 비관세 대응을 지원하고,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 거점을 확대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AI 수출비서 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개시한다.

셋째, 수출기업 성장 단계별로 촘촘한 성장 사다리를 놓는다.

향후 5년 간 지방·영세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실무교육부터 온라인 수출플랫폼 입점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지방의 수출초보기업 대상으로 단체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5년간 천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수출 중추기업 500개 사를 육성한다.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마케팅, 인증, 금융, R&D 컨설팅 4대 분야 패키지도 내실 있게 제공한다.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무역금융

‘모두의 수출’ 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

- 1 **‘모두의’** 무역금융 : **민관 협업**을 통한 **중소·지방의 성장** 도모
- 2 **‘모든’** 무역금융 : **금융 역할 확대**로 **수출 품목 다변화** 지원
- 3 **‘모든 곳에’** 무역금융 : **전략적 금융**으로 **신흥시장 개척**

4대 추진 과제

과제 1 **중소와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

- ① **중소중견이 함께 웃는 상생 무역금융 확대**
- ② **중소·중견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공급**
- ③ **지역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

과제 2 **수출품목 다변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무역금융**

- ① **K-소비재 등 유망산업 무역금융 공급 확대**
- ②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수주·수출 지원 강화**

과제 3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무역금융**

- ① **新시장 개척을 위한 단계별 무역금융 공급**
- ② **국내·외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견인**

과제 4 **무역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정비**

- ①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보험법 개정**
- ② **AI 기반의 對기업 무역금융 서비스 강화**

【 (안전2)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 】

정부는 모두가 수출의 성과를 함께 누리고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중소기업과 지방의 성장을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2030년까지 187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연계 투자를 신설하고, 수출 초보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금융 지원과 단체보험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은행 출연에 기반한 상생 무역금융도 자동차, 철강, 조선 외에 반도체, 바이오, 소비재 등 주요 수출산업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산업군에 대해 보험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우대금융을 신설해 지역 수출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둘째, 전략·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강화한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전략산업과 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2030년까지 무역금융 127조원을 공급한다. 고위험군 방산 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 수입처에 대해 우리 기업 수주조건부 선금융 제공도 추진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보험 적용범위를 광물 등 주요 자원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핵심기자재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K-소비재 등 유망수출품목은 유통플랫폼기업과 협업해 중소·중견 입점사에 대한 우대금융을 공급하고, K-콘텐츠에 대한 단체보험도 신설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금융을 강화한다.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직접매입하는 수출팩토링 제도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유동성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중소형 프로젝트 참여와 해외 현지법인의 외화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 (일시·장소) '26.2.25(수) 15:30-17:00 / 코트라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정부,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등
 - (정부) 산업부 장관(주재), 재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문체부, 중기부
 - (지원·금융기관) 코트라·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하나은행
 - (업계)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 * 참석기업 : 한국콜마, 무신사, 효성중공업,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지빌리티, 현대자동차, HD한국조선해양, 포스코
 - (경제단체)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
- 안건
 - ① '26년 범부처 수출 확대방안^{관계부처}
 - ②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산업부}
- 업무협약
 - 무보-하나은행 간 전략적 업무협약

< 행사 세부 계획(안) >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30~15:40 (10')	10'	< 1부 > 업무 협약 (10층 영상회의실)	
	(10')	무역보험공사-하나은행 간 전략적 업무협약	무보, 하나은행
15:40~17:00 (80')	80'	< 2부 >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10층 대회의실)	
	(05')	모두 발언	산업부 장관
	(05')	발 '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산업부 무역정책관
	(05')	표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	산업부 수출입과장
	(63')	토론	전체 참석자
	(02')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 업무 협약식, 회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